

는 젊은 주부들도 언젠가는 자신
의 일을 갖겠다고 긴장을 늦추지
않는 경우가 많아졌다. 물론 의
식의 편차는 있을 수 있으나 대
체로 새로운 정보에 민감하고 자
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에 부지
런한 편이다.

그런데 아직까지 여성자들은
독자의 기호를 못따라가고, 오
히려 잠재력을 퇴보시키는 것이
다. 女苑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
은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 속에서
한 인격체로서 두 발을 굳게 딛
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,
그를 통해 올바른 여성문화와 민
주적인 가정문화가 창출되는데
노력했으면 하는 점이다.

요즈음엔 수돗물도 마음대로
마실 수 없고, 우리 환경이 너무
도 황폐해 있다. 바로 이웃과 함
께 우리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
위한 작은 실천을 모색하는 것도
한가지 방법이 아닐까? 女苑의
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.

‘홀로서기’ 토크!

박영숙(국회의원) *박영숙*

女苑의 독자는 주로 30대 기
혼여성들이 구독하는 잡지인 듯
하다. 요즈음 30대는 우리 세대
와는 달라서 상당히 진취적이
다. 아기를 기르느라 정신이 없



1990년 9월, 여원.